

“국정 안정 위해 총선서도 승리하자”

李 당선인 신년회 “인수위, 국민에게 가능성 보여야” “당 운영도 한단계 도약을 ... 뒤에서 수군대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일 “2008년은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쁨은 잠시였고, 두려운 마음을 사실 갖고 있다. 앞으로 5년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저 혼자서 될 수는 결코 없다”고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당선인은 연합동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신년인사회에 참석, “기본적으로 당과 힘을 모아서 5년간 국민이 기대하는 그런 국정을 이뤄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540만표를 더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에게 감사할 일”이라면서 “그런 지지가 4월 총선에도 이뤄져 국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를 또 한번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수위 기간에서부터 짧은 몇 달 사이에 우리가 국민에게 가능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면서

“그래야 한나라당에 대해 국정도 안정되게 운영 되도록 지지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당선인은 “우리 당은 이제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당운영을 하리라고 본다”면서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밝은 표정으로 나와야지, 뒤에 숨어서 수군수군 대는 것은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그래 가지고는 발전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밝은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당을 중심으로 해서 나갈 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태안의 자원봉사를 예로 들면서 “봉사하는 데는 전라도, 경상도 그런 것이 없다. 젊은이, 나이 드신 분 구분도 없고, 계보도 없고, 계파도 없었다”면서 “뒤에서 수군수군대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우리 한나라당도 잘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마음만 살짝 바꾸면 좋을 것 같다”면서 “복잡할 것도 없다. 열린 마음으로 정말 잘 해서 5년 후에 한번 더 해야지, 잘 해서 연장해야지, 끝수를 갖고 연장하면 안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당선인은 “총선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당이 협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부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에게 잘 하려면 우리 당도 위대한 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우리 당이 잘 돼야 한다. 그래야 남들이 볼 때 우리는 시원찮은데 남들보고 협조해 달라고 하면 되겠느냐”면서 “이번 총선에 안정적 의식을 얻도록 저도 협조하겠다. 희망을 주는 일을 잘 하면 그래 당에 도움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해에는 대한민국 국운이 아주 융성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남북이 실질적으로 가슴을 열고 화해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회의 새해 첫 날인 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들이 2일부터 시작되는 정부 업무보고에 앞서 분과별 회의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업무보고...정권 인수 본격 돌입

인수위 각 부처 파견 공무원 72명 등 인선 완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구랍 30일 정부에서 파견된 실권인 34명의 명단을 확정된 데 이어 31일에는 38명의 파견 공무원을 결정하는 등 인수위 구성을 완료했다.

이들간에 걸쳐 발표된 72명의 실무위원은 정부부처 4급 공무원이 주축이며 일부 3급도 포함돼 있다.

인수위는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파견된 전문위원 및 실무위원은 민원 등 불필요한 잡음을 피하려고 공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을 불렀다.

인수위는 또한 지난해 구랍 31일 34개 정부 부처 및 국가기관에 대한 분과별 업무보고 청취 일정을 확정했다.

이통과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부처보고는 1월 2일부터 10일까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끝내기로 했다”며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장을 책임자로해서 핵심 국장과 일원 파견관 참석하는 슬림화된 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보고시간도 종전에는 하루 종일 걸렸지만 가능하면 단축해서 몇 시간 안에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국정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업무보고부터 패러다임을 바꾸자”며 “최대한 실무자 중심으로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또 김형오 부위원장은 “5년 동안 진행했던 일을 미주알고주알 보고받는 게 아니라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보고가 되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업무보고는 부처에 따라 인수위 또는 부처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일부 부처와는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방을 찾아가서 의견을 듣거나 서울로 모셔서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조정분과위 박형준 의원은 업무보고 방식과 관련, “현안보고 뿐만 아니라 ‘주문형 보고’도 병행된다”면서 “현재 분과별로 3.4개 중점과제 선정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게 향후 중점 추진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2일 교육인적자원부를 시작으로 8일까지 모든 부처의 업무

보고 절차를 끝낸 뒤 9~10일 정리작업을 거쳐 1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종합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분과별 업무보고 일정.

◇정무분과
▲3일 국무총리실, 중앙인사위원회 ▲5일 국가정보원 ▲7일 청와대 ▲8일 감사원
◇외교통일안보분과
▲4일 외교교통상부 ▲7일 통일부 ▲8일 국방부
◇법무행정분과
▲3일 국정홍보처, 법제처 ▲4일 행정자치부, 경찰청 ▲5일 법무부, 검찰청
◇경제1분과
▲3일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4일 기획예산처 ▲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청, 관세청, 조달청
◇경제2분과
▲4일 해양수산부, 농림부 ▲5일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6일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사회문화여성분과
▲2일 교육인적자원부 ▲5일 여성가족부 ▲7일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가보훈처 ▲8일 노동부, 문화관광부

李 당선인-정당대표·대선 후보 회동 추진

이명박 개별 아닌 단체 회동 유력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월 중 대통령 취임식,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등 각 정당 대표 및 대선 후보들과의 회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역 당선인 대변인은 구랍 31일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주요 후보들과의 회동을 검토 중”이라며 “신당

정동영 후보를 비롯해 민노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민주당 이인제, 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 측은 대선 후보 뿐 아니라 신당 오종일, 민주노동당 문성현, 민주당 박상천 대표 등 정당 대표들과도 1월 중 회동한다는 계획이다.

형식은 개별 회동보다는 다 함께 만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당선인 측은 “회동에서는 2월 중에 실시될 새 정부 국무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한 협조요청과 함께 취임 이전 유류세, 휴대전화 요금 인하 등 서민생활비 절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관련법 국회 처리 등에 대한 협조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파견 공무원, 부처 이기주의 안돼” 李 당선인 밝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일 “자기가 소속된 부처의 이해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나왔다”고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 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앞으로 두달간은 나 자신과 내가 소속된 부처보다는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인수위 활동에) 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해를 맞아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갖길 바란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융성하고 선진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우리 후손들이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당대에 어떻게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당선인은 또 “여러분이 두 달간 권력있는 사람과 인연 맺고 그 덕에 뭐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개편, 인원 감축보단 기능 위주로”

인수위, 조직개편 속도 낼 것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구랍 31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이 부분에 대해 속도를 내되 차분하게 점검할 것은 점검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당선자가 탁월한 기준을 정해서 일하기 편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숫자를 줄인다는 것보다는 기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간이 없지만 더 빨리 열심히

해야 하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핵심 인사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얘기했듯이 조직개편에 대해 무조건 조직을 줄인다고 보지 말고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걸로 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당선인은 “산업화 시대의 조직으로는 21세기에 성공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그 전제는 사람과 조직을 줄이기보다는 그 기능을 어떻게 조정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또 “24

시간이 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손님을 아껴 24시간을 잘 사용하면 일생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면서 “우리는 새 정부의 출범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인수위원들의 활동을 독려했다.

그는 “실무인사와 관련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인원이 적고 미흡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선인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인력과 예산을 20% 절감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그 의지를 받들어 그렇게 했다고 이해하고 앞으로 20% 노력을 더 발휘해서 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박범훈 중앙대 총장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구랍 31일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에 박범훈 중앙대 총장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측이 밝혔다.



경기 양평 출신인 박 총장은 한 국국악에 숭학대 와 중앙대 예술대 음악과를 나왔으며 서울 국악에고 이사장, 국립국악관현악단 초대 단장, 중앙대 국악대학장을 지냈다. 연합뉴스

▲고침=본보 구랍 29일자 5면에 게재된 ‘맹형규 의원 광주 서중일고 총동창회 명예 동문’ 기사와 관련 맹 의원을 명예동문으로 추대한 동창회는 ‘서중일고 총동창회’가 아닌 ‘서중일고 재경 동창회’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89 / 02-222-0100

1021530-9300